

능장행정 손해배상 해줄판

보성군, 5년 끝다 공사계약 해지 통보 건설사 “장비 철수 늦어져 막대한 피해”

자치단체의 능장 행정으로 인해 수 년이 지난 뒤 뒤늦게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성군은 지난 2001년 11월 28일 보성~천포간(5.7km)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키로 하고 I건설업체와 2년간 연차계약(공사비 11억 9천만원)을 체결했다.

군은 공사 시작과 함께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뢰했고, 이듬해 3월 현재 진행 중인 구간은 호남 정맥에 해당된다며 “터널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하지만, 군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한 뒤 1차 구간 준공(2002년 12월 21일) 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I건설업체와의 2차 계약을 보류했다. 터널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과다한 소요 사업비에 비해 유동 교통량 등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 의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문제는 보성군이 환경성검토와 군 의회의 반발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으면서도 해당 업체인 I건설사 측에 정식으로 공사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대신 군은 I건설 측에 기존 공사 원상복구, 임도(林道) 대체 공사 등을 구두로 제시하고, 원상복구 공사 설계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I건설 측은 공사가 중단됐더라도 군의 대체 후속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기존 공사 인력과 현장 사무실을 공사 현장에 놓아 둔 채 답변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군은 공사 중단 이후 5년 뒤

인 올해 3월에서야 “과도한 사업비로 인한 경제성 없어 시행을 중단한다”는 계약 체결사항 해지 통보를 I건설 측에 보내었다. 이에 I건설 측은 현장에 체류했던 직원 인건비와 현장 사무소 임대료 등 1억4천만원의 손해비용을 군에 청구했다.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공사를 시작한 군의 안일한 행정과 능장행정이 건설업체의 피해로 이어진 셈이다.

I건설 관계자는 “군 측에서 공사 재개 또는 대체 공사를 줄 것처럼 의사를 내비쳐 기다렸는데, 지금 와서 판 소리를 하고 있다. 더구나 공사 계약해지 통보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군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성군 관계자는 “공사 중단 후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는 데다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I건설 측에서 스스로 판단, 현장 직원과 사무소 등을 철수하지 않은 만큼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소방동요경연대회
이 참가했다.

광주시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주최로 19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0회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서 유치원생들이 태극문양 복장을 한 채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유치부 10개팀, 초등부 4개팀에 46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과학대학 국내 첫 캐디학과 개설

2009학년도 신입생 40명 모집

프로 골퍼가 우승을 확정짓고 난 뒤 가장 먼저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는 사람은, 캐디다. 골퍼의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 줌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최측근 조인자'인 캐디의 역할은 작지 않다. 캐디도 '프로급'이어야 하는 이유다.

프로캐디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가 국내 최초로 개설돼 화제다. 2009학년도 신입생을 위해 올해 첫 전형을 실시하는 전남과학대학 골프·프로캐디학과는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캐디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대변한다. 일부 대학이 캐디 전공 학생을 모집하긴 했지만 학과 개설은 처음이다.

모집 정원은 40명. 2년제인 이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한국캐디협회와 프로캐디자격증, 컨트리클럽 캐디마스터 양성과정, 클럽피팅 자격증, 골프트레이너 강사 자격증, 생활체육 3급지도자 자격증(골프) 등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또 주말과 방학 기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성적 우수자에게 50%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기숙사 시설도 완비돼 있다. 직 장인을 위한 야간 과정(정원 40명)도 마련됐다.

김진철(KPGA 소속 프로선수) 교수는 “광주·전남의 주요 골프장들과 산·학협약을 맺어 졸업생들의 취업을 앞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지하철 무료 이미용소 2호점 개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는 중앙미용전문학교와 함께 25일 광주지하철 광산구 도산역에 '효사랑 무료 이·미용소 2호점'을 개설한다.

'효사랑 무료 이·미용소'는 앞으로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 오후에 3시간씩 이발 등 머리손질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용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지난 2006년 동구 금남로 4가역에 라이온스클럽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개설한 1호점 '동글이 방글이 무료

이·미용소'는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너무 많아 대기 번호표를 발부해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예술무대와 문화전담역의 '5·18 홍보관', 금남로 4가역의 '도종민물고기 생태전시관', 금남로 5가역의 '영화의 거리'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들의 주 견학대상은 광주시의회 주차장의 태양광시설과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 태양광주차장, 조선태 그린빌리지, 110세대의 태양광수립 해 모두 1천544억원을 투입, 538곳에 3천700kW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정후식기자 who@

고유가 시대 맞아 '태양에너지 도시' 벤치마킹 줄이어

고유가 시대를 맞아 광주시의 '태양에너지 도시(Solar City)' 건설사업 현장에 벤치마킹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19일 경북도 공무원 40명이 광주를 찾았고, 오는 28일에는 가평군청 공무원 38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3월 광주시청 신청사

광주 건설사업 현장 전국 각지 견학 행렬

개청 이후 지금까지 태양광 시설 견학을 위해 찾은 공식 방문객은 3천811명(81회)에 이른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확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자동종료제도 폐지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의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가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에 도달하면 법정 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던 제도도 이번에 없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1일 출생한 자녀에 대해 올해 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던 내년 3월31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 있는 경우 한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소방안전본부 감전사고 주의보 발령

광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는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8일 '장마철 감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 소방본부는 감전사고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늘기 시작해 7~8월에 가장 자주 발생한다면서 집중호우시 공사장, 신호등, 가로등,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에서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의보 발령에 맞춰 시 소방본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등과 함께 장마철 감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주기자 ahj@

광주시, 여의도 1.2배 땅 찾아줬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980건 해결

광주시 남구 월산동 박모(45)씨는 2월 갑작스런 사고로 어머니가 숨지자 당황했다. 모친의 재산 가운데 땅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정작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우연히 광주시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시청을 찾아 원클릭으로 재산현황을 확인, 2필지 3천㎡의 땅을 찾을 수 있었다.

박씨처럼 광주시의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되찾은 토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848만여㎡)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처음 실시한 2001년 이후 7년여 동안 민원인들에게 모두 980건, 1천46만1천900㎡를 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그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명의 재산을 전국지역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

고해주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시 토지정보과 '조상땅 찾아주기' 접수처(062-613-4583)로 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제, 여수의 역사를 새로 쓴다!

신명웅천지빌

신명웅천지빌

2,060㎡당 평 1,084개

061)683-7000